## 오늘의 날씨와 생활

10월 2일 수요일 음 9월 4일 (11물)

기상정보

### 흐리고 비

제주에는 북상하는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 아침 기온은 22~23℃, 낮 최고 기온은 25~26℃로 예상된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 점검과 농작물 낙과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오 전 | 강 수 확 률 | 오 후 |
|---|---|---|
| 100% | 제 주 | 100% |
| 100% | 성 산 | 100% |
| 100% | 고 산 | 100% |
| 100% | 서귀포 | 100% |

| | | |
|---|---|---|
| | 해뜸 06:28 해짐 18:18 | 달뜸 10:03 달짐 20:58 |
| 물때 | 만조 00:25 13:12 | 간조 07:06 19:43 |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 | | |
|---|---|---|
| 내일 | 흐리고 비 | 24/26℃ |
| 모레 | 구름 많음 | 20/25℃ |

생활·안전 기상정보

| | |
|---|---|
| 식중독지수 | 감기가능지수 |
| 관심 | 보통 |

## 월드뉴스

# 中 열병식 '숏지구 타격가능' 둥펑-41 등장

### 사거리 1만4000㎞ 현존 최장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을 맞아 열린 대규모 열병식에서 중국의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둥펑(東風·DF)-41'이 처음 등장했다.

둥펑-41을 실은 초대형 차량 16대는 1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지상 무기 중 가장 마지막 순서로 소개됐다.

둥펑-41은 길이 16.5m, 직경 2.8m이며, 고체연료를 사용해 발사에 걸리는 시간이 짧고 총중량은 60여t에 달한다.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를 인용,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미국 미니트맨(LGM-30) 미사일의 1만3000㎞를 뛰어넘는 1만4000㎞로 세계에서 가장 길다고 소개했다.

이 때문에 둥펑-41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 등 지구상 거의 모든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또 공격 목표 오차범위가 100m에 불과하고 최대 10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국 70주년 국경절 열병식에 등장한 둥펑-41.

중국 군사전문가 우젠은 "중국이 충분하고 믿을 수 있는 전략적 핵능력을 갖췄고, 정책결정자들이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둥펑-41을 선보이고 사용할 자신감이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열병식에서는 남중국해·대만해협·동북아시아를 사정권에 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둥펑-17도 첫 선을 보였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용구 편집국장 김기현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hl@ihalla.com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허상문의 에세이로 읽는 세상

# 풀잎을 위한 노래

오늘도 풀은 쑥쑥 자라고 있다. 작은 마당에서 풀들은 자신들 세상인 양 거침없이 자라고 또 자라났다.

풀과의 전쟁은 계속되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풀을 뽑고 예초기를 돌려도 돌아서기 바쁘게 또 자라 있었다. 이웃 사람들은 제초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지만, 제초제를 이용하여 풀의 생명을 송두리째 앗아 버릴 수는 없다.

마당에서 자라나는 풀잎은 밤하늘 어딘가에서 반짝이고 있는 별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풀과 나무는 서로 얽혀 간절히 얼굴을 부비 대며 도란대고 있었다. 땅에서 기어 다니는 개미, 풀숲 사이를 날아다니며 노래하는 새, 사나운 인간들의 총질에 도망가는 노루는 모두 나름대로 고귀한 생명을 지니고 있는 존재들이다.

미국의 시인 월트 휘트먼은 '풀잎'이라는 시에서 한줄기 '풀잎'을 "희망의 푸른 천으로 짜여진 깃발"과 같다고 했다. 그리하여 풀잎에서는 희망과 사랑과 생명이 싹튼다고 하였다. 오늘도 마당 여기저기에서 풀잎은 한들대며 그들의 존재를 과시한다.

우주 어딘가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 생명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한낱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인간은 자신의 지식과 과학과 이성의 힘을 자랑하며 이 세상에서 수많은 야만을 저지르고 있다. 인간의 사악하고 부도덕한 마음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

학교와 사회에서 배운 지식과 규범에 따라 우리는 행동한다. 이 지식과 규범은 대개 영혼과 정신을 옥죄고 가두는 것들이다. 이런 인위적·가공적 지혜에 비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답다. 하늘을 바라보며 따뜻한 햇빛이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고, 밤이 되어 달과 별을 바라보는 것은 우주와 세상의 운행에 나를 맡기고 함께 숨쉬는 것이다. 사소하고 세속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멀리하고 삶의 진리를 알려주는 대자연에 감사하며 그 품속에서 잠든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자본과 과학기술의 힘에 이끌려 여기저기 이끌려 다닐 수는 없다. 들판에서 풀과 나무와 새를 만나서 함께 노래하는 시간은 너무나 아름답다. 물가로 가서 강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바라보고, 해 질 무렵에는 서쪽 하늘로 가서 지는 해를 바라보라. 흐르는 강물은 인생이 가는 곳을 일러주고, 노을은 어두운 가슴을 아름다운 수채화로 그려 줄 것이다.

우리가 바라보고 귀 기울여 듣는 산과 들의 노랫소리는 천상의 복음과 같은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거나 영원히 소멸하는 것은 없다. 모든 생명은 언젠가 죽게 되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인간의 부도덕하고 폭력적 마음으로 인해서 저세상으로 떠나간 생명에 어떻게 사죄할 것인가. 풀이 나무를 만들고 오가는 새들을 모아 우리의 삶을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자연을 떠나서 인간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풀에 이길 수 없다. 나무와 곤충과 새에게도 이길 수 없다. 저들의 생명을 존중하며 함께 어울려 살 수밖에 없다. 풀은 풀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새는 새대로, 나는 나대로, 자신의 모습을 간직하면서 더불어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

<문학평론가·영남대 교수>

## 열린마당

# 수상선과 실천의 날

**김 창 윤**
제주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올해 감귤이 달린 양상은 특이하다. 서귀포 동지역을 비롯한 남원지역에는 많이 달리고, 그 외 지역은 대체적으로 열매 수가 적다. 2000년 이후 관측조사 사상 처음으로 서귀포지역 감귤나무 1그루당 평균 1000개 이상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서귀포 지역은 생리적 낙과가 종료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열매솎기를 해오고 있으나 아직도 극소(대)과와 비상품 감귤이 많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극조생을 수확하면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비규격과일 수확 등으로 가뜩이나 비싼 인건비가 그만큼 더 소요돼 경영비 과중으로 이어질 것이다. 때문에 극조생을 포함한 일반조생 감귤 열매를 수상선과(비상품감귤을 나무에 달린 상태에서 수확 전 까지 선별하듯 모두 따내는 작업)해야 수확 인력을 줄이고 상품 비율을 높일 수 있다.

농업기술원은 9월 30일을 도 전역에서 일제히 '수상선과 실천의 날'로 지정해 농업인의 자율적인 실천을 유도하는 실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 방법은 각 마을 감귤 재배농업인이나 단체회원 등 4~6명이 수눌음 형태의 그룹을 자율적으로 구성해 자체적으로 수상선과의 날을 지정해 구성원이 윤번제로 각자의 농장에서 수상선과를 실시하여 작업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 예상량은 52만8000t 내외. 2015년 이후 4년만에 50만t 이상이 생산될 것으로 예측돼 감귤 제값 받기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더군다나 사과나 배, 감 등 가을에 수확하는 과일 생산량이 적게는 3%에서 많게는 16%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에도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비규격 과일은 모두 따내어 상품과 비율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다.

# 생존을 위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강 기 혁**
서귀표시 대정읍 주민자치과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있다. 이는 장애인에게 최대한 비장애인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삶의 형태와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다. 자유로운 이동성은 장애인들의 생존과 직결될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사회참여,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전제가 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에서는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는 시군에서는 중증장애인(구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 이상에 해당하는 특수교통수단을 확보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운행되는 휠체어 탑재가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은 46대로 도내 1·2급 중증장애인 7869명(19년 6월 기준)에 대한 법정기준 대수 39대 이상이나,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새로 편입된 6300여명(구 3급 장애인)의 중증장애인과 7만명 이상의 고령자, 임산부 등을 포함하면 특별교통수단 차량 대수는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제주도는 특별교통수단 1대당 월평균 이용건수가 313.2회로 전국 1위를 차지할 만큼 이용량이 많지만 그에 비해 차량 대수가 너무 적어 보통 30분에서 1~2시간 정도 기다려야만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 대수를 개정하고 특수차량을 증차해 더 많은 이동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저상버스를 늘려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178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피 고 인 주식회사용연

위 피고인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10. 1.

판사 박 준 석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178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 피 고 인 주식회사미담디앤씨

위 피고인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10. 1.

판사 박 준 석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1785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등
- 피 고 인 김봉섭

위 피고인은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10. 1.

판사 박 준 석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178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 피 고 인 김태종

위 피고인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10. 1.

판사 박 준 석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178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피 고 인 주식회사다인주택개발

위 피고인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10. 1.

판사 박 준 석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178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 피 고 인 황세룡

위 피고인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10. 1.

판사 박 준 석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178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 피 고 인 주식회사제주주택

위 피고인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10. 1.

판사 박 준 석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1785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등
- 피 고 인 문승환

위 피고인은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10. 1.

판사 박 준 석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178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 피 고 인 장현대

위 피고인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10. 1.

판사 박 준 석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178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피 고 인 주식회사하연

위 피고인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10. 1.

판사 박 준 석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178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 피 고 인 김창균

위 피고인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10. 1.

판사 박 준 석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178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 피 고 인 류기종

위 피고인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10. 1.

판사 박 준 석